
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(2020~2022) [요약]

2020. 5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	1
II.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	1
III.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 환경의 주요 변화	3
IV.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도출	4
V.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	7
VI. 향후 추진 일정	7

I.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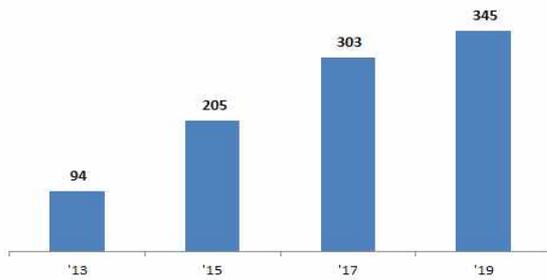
- ① '03.12월, 「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」을 수립하여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
 - '07.12월, 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정
 - '08.4월,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
- ② '08년부터 '17년까지 4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·추진
 - '08.8월, 「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 ('08~'10) 수립
 - '09.1월, 서울·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
 - '11.9월, 「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 ('11~'13) 수립
 - '14.10월, 「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 ('14~'16) 수립
 - '17.10월, 「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 ('17~'19) 수립

II.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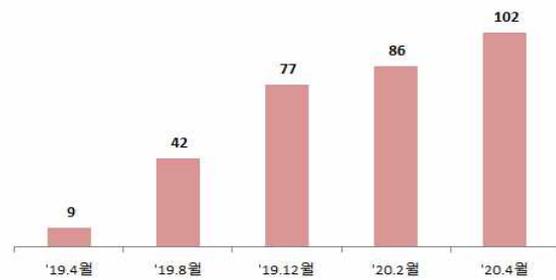
1 잘된 점

- 자본시장 규모 확대 및 질적 성장 추진하는 한편,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혁신금융 지원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
 -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증가하고, 외국인 주식 보유액 또한 증가
 - * 시가총액 / 외국인 보유액(조원, 연말 기준) : ('13년) 1,305 / 431 → ('19년) 1,717 / 593
 - 민간모험자본 생태계 구축,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 혁신, 핀테크 스페일업 등을 통해 혁신성장 선도

핀테크 기업 수('19년)



혁신금융서비스 지정('19년, 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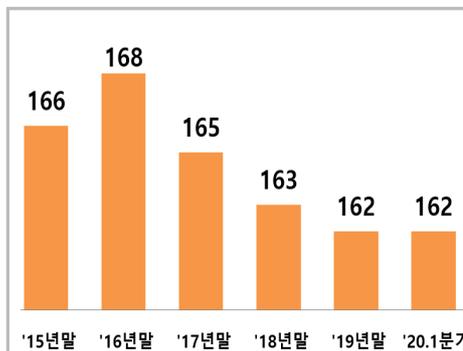


- 특히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인프라·감독·시스템 구축
 - FSB 등 글로벌 논의 적극 참여,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
 - 서울·부산의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, 금융산업을 선도할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

2 아쉬운 점

- 금융산업의 전반적 성장과 함께 최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, 여전히 국제경쟁력 개선과 글로벌화 추진 필요
 -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여전히 모국투자편향(Home bias)*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
 - * 우리나라 모국투자편향은 '18년 0.77로 '01년(0.98) 대비 대폭 완화되었으나, 미국 0.56, 영국 0.33, 독일 0.38 등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
 -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점수익성 악화 등으로 국내 진입이 정체 및 영업축소 움직임이 존재

< 연도별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입 현황 >



(단위 : 개)

구분	'15년말	'16년말	'17년말	'18년말	'19년말 (A)	201분기 (B)	차이 (B-A)
은행	60	60	55	56	53	53	-
금융투자	56	56	59	57	59	59	-
보험	29	30	30	30	29	29	-
여신전문	15	14	13	12	13	13	-
저축은행	6	8	8	8	8	8	-
합계	166	168	165	163	162	162	-

Ⅲ.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 환경의 주요 변화

- (글로벌 금융중심지) 일부 금융중심지의 정치적·사회적 안정성 우려, 아세안 경제 급부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환경 변화
 - 홍콩은 중국의 역외 금융허브로 자금조달 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나,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자금유출 우려 등 확대
 - * 정치적 이슈 이후 홍콩 경제의 하방압력 확대되어 '19년 3/4분기 및 4/4분기 GDP 성장률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
 - 싱가포르는 대체투자의 성장, 정치적·사회적 안정성에 힘입어 아세안 투자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, 중국은 상하이, 선전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음
 - 호주는 퇴직연금 시장등의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하여 자국 펀드운용 서비스의 수출 및 해외금융회사 유치 추진
- (국내외 금융환경) 국내투자자의 모국투자선호도가 완화되고, 전반에 걸쳐 핀테크가 더욱 강조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
 -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최근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며, 특히 국내 연기금 등 일반정부 부문의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확대됨
 - * 국내투자자의 '20.1분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직전분기(395.7억 달러) 대비 68.2% 증가한 665.8억 달러로,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
 - 금융 아웃바운드 전략의 대상으로서 신흥 경제권의 대표주자인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
 - * '19년도 국내 금융회사의 신규 해외점포 신설 총 27건 중 13건(48%)이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 위치
 - 글로벌 금융중심지 역할 수행에 있어 핀테크 서비스에 유리한 사업 환경 조성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

IV.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도출

1 우리나라 금융 중심지 SWOT 동태적 분석

- (기존 분석) 강한 실물경제 기반과 풍부한 연금자산 축적, IT 시스템 발달은 강점이나, 국제업무능력 부족 및 경직적인 규제 환경, 낮은 자본수익률 등은 약점으로 분석됨
- (동태적 분석) 지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시 강점과 약점의 동태적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최적 전략을 도출
 - (강점1: 실물경제)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낮은 경제성장률('19년 2.0%)에 직면하고 있으며, 상장기업 수 증가 추세 둔화
 - *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, 상장기업 수는 '07년 대비 '19년 29.9%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146.8% 증가한 중국, 97.3% 증가한 홍콩과 비교시 낮은 증가율을 보임
 - (강점2: 금융자산) 세계 3위 수준의 연금자산 축적으로 금융 시장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토대 마련
 - * 연기금 규모 순위('19, 십억불) : (일) 1,374 (노) 982, (한) 573, (중) 371 (캐) 287
 - (약점1: 금융시장 국제화)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지표*를 볼 때, 한국의 국제화 수준은 주요국 중 중국 다음으로 낮음
 - *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지표 = (대외금융자산+대외금융부채) / GDP
 - ** '18년 기준 주요국 중에서 홍콩이 2,641%로 가장 높고, 중국이 92%로 가장 낮음
 - (약점2: 규제감독환경) WEF 기준 한국의 투자자보호지표의 글로벌 순위가 크게 상향되었으나 증권거래규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
- (시사점) 금융중개형 중심지모델(홍콩, 싱가포르 등)을 따르지 않는 한, 실물경제-자본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필요

비전

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

중점전략

-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
-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
-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: ASEAN 진출 확대

추진 과제

①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

- 핀테크 혁신
- 자산운용시장 활성화
- 공적기금 해외투자 내실화

② 금융인프라 국제화

- 금융 데이터 활용도 제고
- 자금세탁 방지 제도 제고
- 외환제도 개선
- 금융규제 국제적합성 제고

③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

-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
- 지역별 전략 수립
- 금융중심지별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

3

대과제별 기본 방향

1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증점지원

- (핀테크 혁신) 자금·예산 등 핀테크 지원기반 확충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핀테크 육성
- (자산운용시장) 퇴직연금 및 연기금 운용을 활성화 하는 한편, 펀드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자산운용분야 혁신을 유도
- (공적기금 해외투자 내실화)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,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기여

2 금융인프라 국제화

- (데이터 활용)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·제도적 기반을 구축
- (자금세탁 방지)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
- (외환제도 개선) 외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여 대외거래 원활화를 지원하고,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 등 활성화
- (금융규제 국제적합성)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갖추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제고

3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

- (금융중심지 성공적 조성)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저변확대 지원
- (지역별 전략등) 금융중심지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,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

V.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

- ◆ ①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실적,
②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지표 측정을 통해
⇒ 금융중심지 정책 성과 측정 일관성 지속

①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실적

- 기존에 성과지표로 사용해 왔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실적의 합을 성과지표로 지속 활용

*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실적(건) : ('15) 48 → ('17) 37 → ('19) 24

②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지표

- 대외투자포지션상의 “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합이 GDP 대비 비중”을 지표로 설정

*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지표 = (대외금융자산+대외금융부채) / GDP

-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, 특히 지난 3년간 평균치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

* 기본계획 주기별 지표 평균치 : (제1차, '08~'10) 134.8% → (제2차, '11~'13) 144.2% → (제3차, '14~'16) 151.2% → (제4차, '17~'19) 175.1%

-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, 앞으로도 국경간 금융거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

VI. 향후 추진 일정

-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·의결('20.5월)
- 제10차 금융위원회 심의·의결(5월)
- 2020년도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작성 및 국회 제출(~8월)